

오늘 하루 무얼 구했습니까?

수안 스님의 가르침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게 섞인 수안 스님의 법문은 늘 자기 교백제이다. 불자들은 정신없이 웃다가도 그속에 담긴 불법의 깊이를 느낄때면 자신도 모르게 감화된다.

우주의 법은 법사가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을 가닥을 지어, 이렇게 하면 법이고 저렇게 하면 비법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부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에 중생이라 합니다.

문수보살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여의봉(如意棒)'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봉이라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물건인 듯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집에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노인들이 쓰는 '효자손' 말입니다. 이거 하나면 가려운 것을 긁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니다.

여의봉이나 효자손이나 그 이치는 마찬가지로입니다. 불법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가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생활 자체가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갑속에 들어있는 지폐를 보세요. '한국은행권'이라고 인쇄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한국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줄 압니다. 어떤 때는 부끄럽게도 한평생 수행을 해온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한분이 활채어 타고 제가 있는 축서암을 찾아와 "스님 학 찬마리를 모으려 했는데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가져왔습니다"라며 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알맞은 놈이 그분의 행색이 흔히 길에서 꺾이나 뭐 그런 걸 파는 분 같았어. 그 단지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보니 오백원짜리가 들었어. 그 오백원짜리에 새겨진 학 찬마리를 제게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하필 제게 이런 걸 주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스님은 거지가 오면 꼭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하고 묻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꼭 만나보고 싶었다. 고맙게도 그날 오백원 동전에 새겨진 학들은 제가 원장으로 있는 통도사 자비원에 전해졌습니다.

제가 통당을 오는 이들에게 돈을 봉투에 담아주는 이유가 뭘지 궁금하시죠? 저는 1985년에 처음 해외에서 선사(禪書) 전시를 시작했는데, 어느 해는 미국 하와이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같이 여행을 하던 백인 한분이 여행이 끝나자 신문인쇄가 안 된 면을 일부러 골라 1달러를 정성스럽게 써서 버스 운전사에게 주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운전사가 정중히 일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진실이 담긴 진정한 사람과 사람의 인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나 감동적인지 저도 다음에 그럴 기회가 되면 반드시 따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으로 되돌아와 절에 있는데 하루는 한 젊은이가 통당을 왔어요. 하와이

누구나 문수보살의 '여의봉' 가지고 있어
가려운 곳 긁어 주는 '효자손' 같은 이치
우리 생활 자체가 불법임을 알아야

에서의 일은 생각나지도 않고, 순간 젊은 사람이 동냥 오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흔쾌하지 않아요. 하도 때를 써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을 주고 언짢은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갑자기 망치로 얻어 맞은 듯 멍해지는 겁니다.

한때는 스스로 일등 수좌라고 자부심을 가지던 내가, 내 것도 아닌 신도를 시종으로 살면서 중생의 어려움을 모르고 그 사람의 업을 무시하는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아! 나는 진정한 스님이 아니구나. 이런 내가 무슨 수행자냐. 그냥 짚 지키는 사람이지' 하는 마음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 뒤부터는 비록 자장면 값 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통당을 오면 꼭 봉투에 담아 돈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차도 대접합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아저씨, 다음에 또 오이소"하고 인사도 빼먹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몇 해 전 열반한 통도사 방장 월하 스님께서 전화를 해서 "수안 스님,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라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암자에 있는데 멍치가 산만한 사람 맞이 절에 딱씩 하더니 저더러 그림을 해내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해주기는 뭣하고 그림 왜 그림을 원하느냐 했더니, 자신들은 젊어서 죄를 짓고 형무소를 살다 불교공부를 했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고 여러 큰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다고 합니다.

뻔뻔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 정말 싫었지만 큰스님의 부탁이 없으니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려주고 돌려보냈습니다.

2003년 겨울에 월하 스님이 열반에 드시고 다비식을 하던 날 거화를 하려고 썼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서 저절로 무릎이 굽어지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앞으로 절집에서 살면서 누가 내게 "수안 이 자비를 베풀어주소"하는 말을 하겠나하는 싶은 생각이 일면서 큰 참회를 하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절을 하면서 눈물이 활활 흐르는데 얼마나 환희심이 나던지 내 몸이 같이 불속으로 들어가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견 정업 정사유 정어 정명 정진 정법 정정" 이 팔정도든 성스러운 성인이 되는 8가지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실천하면 그냥 성불하게 되고 성인이 됩니다. 제가 통당치들에게 "어저씨 다시 오이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명(正命)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려분 집밖으로 나오면 다 여행입니다. 불자의 여행은 성불을 구하는 구도행입니다. 오늘 하루는 뭘 구했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 어린 사람, 늙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서나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슬픈 지식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오직 내 자성불을 찾아야 합니다.

정려=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민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6>



어쩔 수 없는 범부의 속성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를 만나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기세에 놀라 미친 듯이 달아났지만 광야에는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우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안에 있는 나무뿌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무뿌리를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굶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우물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커다란 독사 세 마리가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우물 벽에는 독사 네 마리가 파리를 쫓고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니다.

우리는 인간 몸 빌려 살아갈 뿐 처지 직시하면 진정한 수행자 괴로움 원인 알아내 잘라내세요

그렇다고 사나운 코끼리가 날뛰고 있는 저 위로 다시 올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요. 목숨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때마침 어디선가 훌연히 바람이 불어와 위태롭게 나무뿌리에 매달려 있는 그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나무에 매달려 있던 벌집에서 꿀 다섯 방울이 그의 입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돌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도 입 속으로 떨어지는 다섯 방울의 달콤한 꿀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하여 자기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든 지를 깨닫고 있는지를 죄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콤한 꿀이 입 속으로 떨어져도 절대로 자기의 처지를 잊지 않습니

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를 직시하고, 이 우물 속에서 죽더라도 안젠가는 또 다른 우물 속에서 똑같이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어리석은 범부중생이고, 후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선 수행자요, 불보살입니다. 범부중생은 괴롭다고 몸부림치면서 눈앞의 쾌락에 정신이 팔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괴로운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든 생사의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다시는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란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는 대상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괴롭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고, 괴로움을 벗어나려고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

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불교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식의 부처님 가르침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그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괴롭다면, 그것이 진실로 괴롭다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내어라', 그래서 '괴로움을 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운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알아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어쩔 가지 바른 수행법(眞道)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해가 닥쳤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우리 이웃들은 그 귀한 목숨을 잃거나 평생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고스란히 물길 속에 떠내려 보내고 맙니다. 자연의 법칙은 정확한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 왜 해마다 사람들은 똑같은 재난을 당하고 괴롭다고 울부짖는 것일까요?

진짜 괴롭다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재해의 원인인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살짝 가려두고 임시방편, 땀질처럼, 전시행정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만 합니다.

내년에도 틀림없이 누군가가 물에 휩쓸려 죽고 어느 산간마을이 매몰될 것이 뻔한데 입속의 꿀 몇 방울에 취하여 괴로운 처지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범부의 속성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미명(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즐거운 여름휴가를 아시아문 추천 도서와 함께..

<p>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p> <p>신화선 중추를 위한 선한영 초경 대법회</p> <p>禪 너는 누구냐</p> <p>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부를 해주시는 책은 이상하게, 해로운 우상 같은 악한으로 자신들의 수심 내 수심 공부를 한중들에게 전한다. 저를 통해 선한영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되어 나왔다.</p> <p>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역음</p>	<p>대하 로고 다큐멘터리 신앙오천축국전</p> <p>혜초따라 5만리</p> <p>무려 15년 동안 7개국 10여 개국을 돌고며 혜초의 발걸음으로 향성한 신앙오천축국전</p> <p>삼권 302쪽 · 하권 296쪽 값 각각 18,000원 / 김규현 지음</p>	<p>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p> <p>선어삼백칙</p> <p>지금 내게 질문하는 저, 이것이 바로 나의 모태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공의 출렁이 나 부처의 있다.</p> <p>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서 譯</p>	<p>잊혀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p> <p>이허진 가람탐방</p> <p>폐사지 보존 방안 상충문제까지 다룬다. 잊혀진 가람탐방이 폐사지를 직접 조사하여 책으로 엮었다.</p> <p>B5 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지</p>	<p>'선방'에서 벌어지는 사건</p> <p>선방 일기</p> <p>저희 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p> <p>B6 / 136쪽 / 값 5,000원 지하 스님 지음</p>	<p>'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처다!</p> <p>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p> <p>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기는 티베트 인물의, 선한 '모라도차제(摩羅道次)'를 통해 스님이 직접 배워 반역한 책.</p> <p>B6 변형 / 178쪽 / 값 6,000원 초월 스님 편역</p>
<p>집착은 마음의 적!</p> <p>스님 이야기</p> <p>수행 · 책 · 보고 · 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 구도계 원리는 스님들의 지혜와 삶과 밀접이 소개된다. 80년 스님의 수행의 속에는 제이난 애비소들도 가득 담겨있다. 그 지혜로 젊은 학사가 되고 내일이 불교학사의 한 장면이 되는 스님들의 진실한 모습이 담겨 있어 의미가 깊다.</p> <p>448쪽 / 값 12,000원 지옥 지음</p>	<p>참선자의 필수도서</p> <p>참선요지(參禪要旨)</p> <p>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내재 그리고 마암과 자기 관하여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p> <p>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법어 / 내성 옮김</p>	<p>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p> <p>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p> <p>2,600년 전의 지안 21세기에도 유효한 내침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p> <p>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p>	<p>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p> <p>항금빛 봉황이</p> <p>바닷물이 밀려난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귀중한 영혼의 선이(禪心)은 안위적인 문자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재의 모험을 조목(條目)에 모두 담겨져 주안이 되게 된다.</p> <p>—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인 스님</p> <p>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물 지음</p>	<p>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경 법어사 설선대법회</p> <p>문없는 문을 열다</p> <p>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10명의 대산자들이 훈야년 설법을 통해 이야기한다.</p> <p>법회 현장에서 도고한 절의영당을 고스란히 옮겨 놓아 생생한 현장감을 더 해준다.</p> <p>A5 / 449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역음</p>	<p>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p> <p>21세기 붓다의 메시지</p> <p>문수의 법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노니 선근공덕이 많은 선방사 선어인들이여 이 책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치라</p> <p>A5 / 300쪽 / 값 15,000원 자재만연</p>

www.yosiamun.com

여시아문 이메일 : yosiamun@buddhopia.com 전화주문 : (02)2004-8219, 737-0695 팩스주문 : (02)737-0696